손으로 보는 세상

⠠⠷⠪⠐⠥ ⠘⠥⠉⠵ ⠠⠝⠇⠶

2016 March
vol. 188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contents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경칩

04 | 시선집중 – 날아라 병아리(5년간의 교직생활을 돌아보며) / 김경민(인왕중학교 영어교사)

06 | 테마기획 – 시각장애인의 길잡이,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08 | 인터뷰 – 여덟 명의 아이들의 희망이 된 대학생, 장지은 학생을 소개합니다.

10 | 포커스 – 한 땀 한 땀 수놓은 한글 자음, 손 끝으로 만지며 읽는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제3회 한 · 일 시각장애교사 교류 연수회를 마치며
/ 김홍엽(시각1급_한국시각장애교사회 회장)

13 | 월드 리포트 – 중국 안내견 절도범, '용서해달라'는 쪽지와 함께 주인에게 개 돌려줘
– 5살 소녀, 화재 속에서 시각장애인 할머니 구해

14 | 뉴스앨범 – 직업훈련 수료식 및 입학식 열려
– 점역 · 교정 스터디그룹 모임 START!
– 시각장애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 충북지부, 대청호 오백리길 17구간으로 떠나요!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6년 3월 188호

발행일 2016년 3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

겨울이 지나고 비로소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3월에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절기인 경칩이 있는데요.

경칩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

경 칩

읽기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	⠉	⠊	⠐	⠑	⠘	⠠		⠨	⠰	⠋	⠓	⠙	⠚	⠠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	⠜⠗	⠝	⠌	⠧	⠧⠗	⠽	⠏	⠏⠗	⠍⠗	⠺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	⠉	⠊	⠑	⠘	⠇	⠨	⠋	⠓	⠙	⠚	⠹	⠾	⠞	⠡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ㅆ받침
⠳	⠻	⠭	⠷	⠿	⠛	⠯	⠵	⠮	⠟	⠸⠎	⠌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	⠁⠉	⠁⠒	⠁⠢	⠁⠝	⠁⠥	⠁⠱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	⠁	⠃	⠉	⠙	⠑	⠋	⠛	⠓	⠊	⠚

문장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줄임표 (· · ·)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	⠃	⠉	⠙	⠑	⠋	⠛	⠓	⠊	⠚	⠅	⠇	⠍	⠝	⠕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	⠟	⠗	⠎	⠞	⠥	⠧	⠺	⠭	⠽	⠵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날아라 병아리
5년간의 교직생활을 돌아보며

김경민(인왕중학교 영어교사)

내가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중학교 아이들이 말을 잘 듣나요? 힘들지 않으세요?”이다. 왜 안 그러겠는가?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그 중학생들과 매일 살을 맞대고 지낸다 하면, 그것도 신체의 중요한 일부분이 없이 지낸다 하면 사람들은 나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싸우는 부상병쯤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장미꽃이 만발한 원피스를 입고 학생들에게 첫인사를 했던 그 해 3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찬바람을 맞으며 새 주인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앞 햇병아리였고, 선반 위에 놓인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까치발을 들어야 하는 어린아이였으며, 사랑하는 연인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여인이었으며,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입 맞추는 새댁이었다.

쓰다듬어주면 향기가 난다는 허브, 율마처럼 아이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향기가 온 세상에 나릴 수 있도록 그들을 쓰다듬어주는 교사가 되겠다는 것이 교사로서 내 첫 모토였다.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동료 선생님들의 우려 속에서도 담대히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나와 함께 일하게 된 보조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며, 나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표하는 다양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다음 날이 기다려졌고, 교사가 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5월이 되면서 날씨와 함께 풀려버린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는 내게 한 달 앞선 여름을 맛보게 해주었다. 2학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나와 함께 일하던 보조 선생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졌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해 보조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 또는 사실상 불안정한 위치에 계시는 보조 선생님의 자존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하고 배려 없이 말하거나 행동했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게 첫 1년을 보내며 나는 달콤쌉싸름한 초콜릿을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다.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낀 달콤함. 보조 선생님이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더 지혜롭고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지 못한 쌉싸름함.

시간은 헛되이 흐르지 않는다. 첫해 이후 내가 보낸 시간들은 더 역동적으로 흘러갔으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일정 부분 내가 원하던 모습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말랑말랑한 선생님, 이후 고배를 마시고 일부러 웃지 않으며 분위기를 압도하는 차가운 선생님, 이후 고배를 마시고 하얀 오선지에 분명한 다섯줄을 긋되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주는 음악 선생님과 같이 나는 변모해 왔다.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을 배웠고, 숲을 보는 동시에 각 나무의 달린 나뭇잎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실력도 많이 좋아졌다. 아직도 나를 ‘그냥 영어 선생님’보다는 ‘눈이 안 보이는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5년간 생활하며 분명히 안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조차도 더불어 사는 법을 익혀나간다는 것이다. 지면 관계상 더 많은 사례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사회에 나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특히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적어도 경계하는 시선 대신 친숙한 시선을 보내리라 확신한다. 학생들이 나에게 배운 것이 영어였다면 뿌듯할 것이고, 함께 사는 법이었다면 기쁠 것이고, 사랑이었다면 감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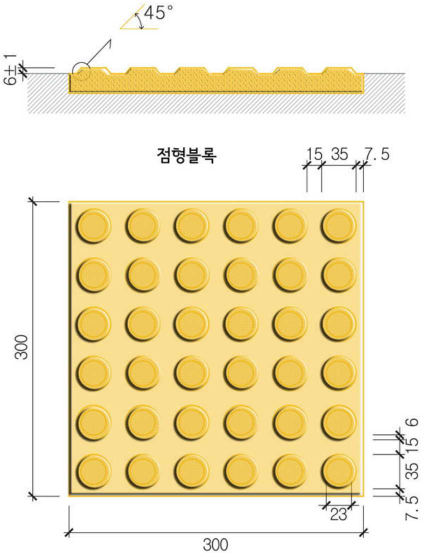
이렇게 이 글이 마무리된다면 독자나 필자나 얼마나 행복하고 훈훈하겠는가? 그러나 한 편에서는 무언가 더 힘들고 자극적인 이야기가 왜 나오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일반학교에서 일을 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수업과 관계라고 생각하여 나는 교사가 되고 첫 2년은 그 문제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다. 그런데 두 해가 지나면서 몇몇 동료 선생님들이 나에게 담임을 권하셨다. 이제 막 2년밖에 안 된 시각장애인 교사에게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는가? 단지 경험과 도전을 통해 더 성장하기 바라는 속 깊은 선배님들의 조언이었을 것이다. 흔히 교사의 꽃은 담임이라고 한다.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산전수전을 겪으며 단단해지는 내실, 미운 정 고운 정을 통해 두터워지는 학생들과의 애착은 담임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에 틀림이 없다. 꽤 오랜 고민 끝에 교감 선생님 및 다른 선생님들과도 의논해보았지만 다양한 대안들이 오르내리다가 그 문제는 일단락지어지고 말았다. 현재 일반학교 근무 환경 상 1급 시각장애교사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배워가며 행정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담임이나 생활지도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 역시 더 거센 파도타기를 필요로 한다. 특히 담임교사를 하게 되면 학생관리, 학부모관리에 이어 많은 행정 업무들이 뒤따르게 되는데 충분치 않은 급여와 대우로 매년, 심하게는 매 학기 보조교사가 바뀌는 현 상황에서 담임이라는 과중한 업무를 주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시각장애교사에게 담임이나 제대로 된 업무를 해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배교사들이 보기에 무능력한 선배교사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들의 자존감에 큰 치명타를 남길 것이다. 함께 교사를 시작한 동료들이 부장이 되고, 교감이 되는 동안 우리는 연차만 쌓인 속 빈 강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는 시각장애교사를 보조해주는 인력에 대한 제도가 공고히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실정일 뿐만 아니라 정교사와 같이 8시간, 특정 업무나 담임업무를 겸하게 되면 그 이상의 시간을 일하며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준교사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사회성이나 해당과목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로 1년을 겨우 보내다 떠나버리는 사람들,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대충 시간 보내다 퇴근하는 사람들 등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시각장애교사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마다 또는 학기마다 보조교사가 바뀐다면 우리 시각장애교사들은 계속 한계에 부딪친 채 쳇바퀴를 돌게 될 것이다. 한편, 시각장애교사들도 보조교사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학생들이 이 불분명한 존재인 보조교사를 선생님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세워주어야 하며, 학생들과 보조교사 간의 갈등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연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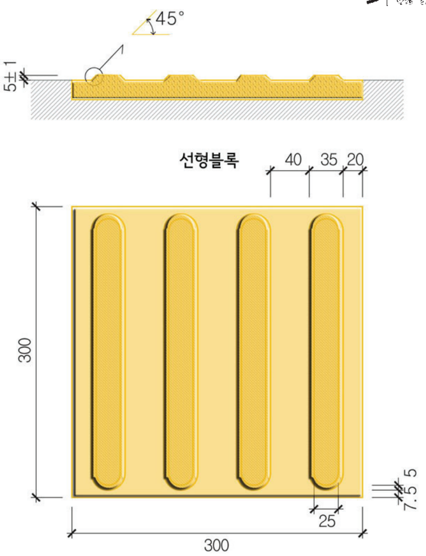
일반학교에서 시각장애교사가 근무를 한다는 것은 애당초 병아리가 하늘을 나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실리에도 맞지 않는 발상이다. 그러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 길을 연 결과,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씨를 뿌리고 흙을 잘 덮어주지 않으면 그 씨앗은 바람에 날아가 아스팔트길에 떨어질 수도 있고 햇빛에 말라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어렵게 구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 날까지 모두 함께 고운 흙이 되고, 따뜻한 햇살이 되고, 촉촉한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

시각장애인의 길잡이,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볼록 튀어나온 노란 점자블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위험이나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방향을 유도하거나 위험 등을 알려주는 주의환기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자블록은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바닥 재질, 색상, 질감 차이 등을 이용하여 유도 및 경고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되 바닥재 색상이 황색 계열일 경우에는 명도의 차이가 크고 구별하기 쉬운 색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점자블록은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0.3m×0.3m를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형블록은 블록 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반구형, 원뿔절단형의 혼합배열형으로 선형블록의 돌출선의 높이는 0.5±0.1cm, 블록 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형블록은 계단, 승강기, 화장실 및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특히 도로에서는 횡단보도의 진입 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부터 보도 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점자블록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거나 손상, 훼손된 점자블록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길눈을 밝혀주는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와 정비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여덟 명의 아이들의 희망이 된 대학생,

장지은 학생을 소개합니다.

> 2011년에 한 명으로 시작한 해외 아동 결연 후원이
> 2016년 모두 8명이 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서는 꾸준한 후원으로 8명의 아동에게
> 희망을 주는 대학생 장지은 학생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 해외 아동 결연 후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서울맹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가 먼저 해외 아동 결연 후원을 시작했죠. 그래서 해외 아동 결연 후원에 관심이 생겼던 차에 해외 아동들을 소개하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어려운 아동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접한 후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VOICEYE
KOR
voiceye.com

그렇군요.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여태까지 꾸준히 후원을 해오신건가요?

아니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금전적인 부분이 여유가 없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니 다시 한 번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2011년 대학교 입학 후 바로 다시 후원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의 아이들을 얼마동안 후원하고 계신건가요?

지금은 모두 8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2011년 1월에 1명, 2013년 9월에 2명, 2014년 6월에 1명, 2014년 9월에 2명, 2015년 5월과 9월에 각각 1명씩 후원을 시작하게 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을 때인 것 같아요. 편지에는 제가 마을에서 유명해졌다는 내용도 있고, 다음에 크면 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서 그런 편지가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후원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우간다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우간다는 어떻게 가게 되신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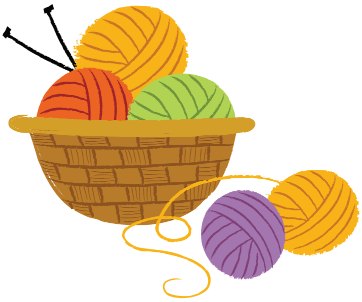
월드비전에서 후원 수기 공모전을 시행했을 때 저도 후원 수기를 공모했었어요. 1등을 한 사람은 해외 사업장 방문 기회를 주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1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우간다에 다녀오게 되었죠.

우간다에서 후원 아동을 직접 만나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우간다에서 제가 2014년 9월부터 후원하던 소피아를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200통이 넘는 편지로만 서로 소통하다가 실제로 보니 신기하기도 했고 기쁜 마음도 들었어요. 소피아가 편지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우간다에 방문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편지로만 전해 듣고 상상하던 소피아가 사는 곳에 가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이 밝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또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해주는데 그 꿈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특히 바라는 것은 아프리카는 조혼이 많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결혼에 구애받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땀 한 땀 수놓은 한글 자음,
손 끝으로 만지며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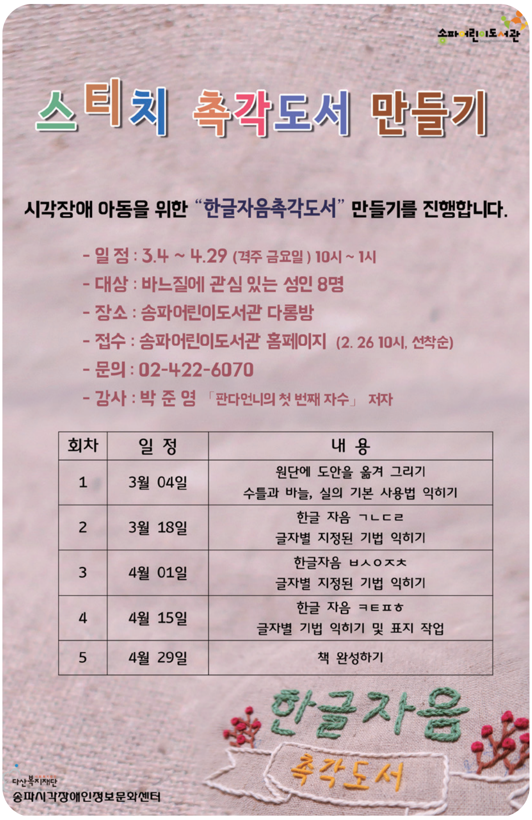
송파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와 송파어린이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스티치 촉각도서 만들기'인데요.
바늘로 수놓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닮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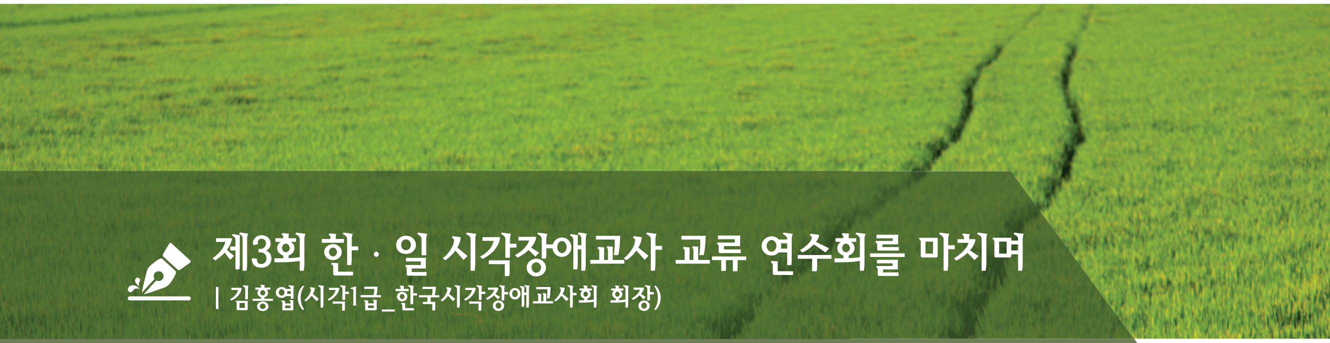
지난 2월 16일 서울에 위치한 송파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와 송파어린이도서관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음촉각도서'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작 시간과 인력, 자본 부족 등의 문제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촉각도서의 양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티치 촉각도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많은 인원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촉각도서 제작에 기관과의 협력,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육성지원금으로 운영), 시민들의 힘이 더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자음촉각도서 만들기'는 시각장애인이 점자 외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거나 가스검침기에 숫자를 기입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글이나 숫자, 영어 등의 학습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스티치 촉각도서 만들기' 제작에는 '판다언니의 첫 번째 자수'로 유명한 박준영 작가가 참여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감과 질감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위한 색깔의 풍부함과 경쾌함을 더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도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7년 전 자수가 마냥 좋아 시작했다는 박준영 작가는 제주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활발히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작가는 이번 수업에서 수틀과 바늘, 실의 기본 사용법 익히기부터 다양한 자수 방식까지 차근차근 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송파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한글 자음 촉각 도서에 이어 모음, 숫자, 알파벳, 도형, 악보 촉각 도서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제작된 도서는 송파어린이도서관에서 5월 중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에게 촉각도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3회 한 · 일 시각장애교사 교류 연수회를 마치며

| 김홍엽(시각1급_한국시각장애교사회 회장)

2015년은 저에게 잊지 못할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제2회 한 · 일시각장애교사 교류회와 12월에 제3회 한 · 일 시각장애교사 교류회의 중심에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12월 제1회 한 · 일 시각장애교사 교류회에 참가하고 일본시각장애교사회(JVT)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JVT는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숙한 단체였으나 그에 비해 한국시각장애교사회(KATVI)는 7년이 되어 가는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JVT는 시각장애를 가진 다른 나라들의 현황에 관심을 가지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며, KATVI는 JVT의 노하우를 통해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시각장애라는 공통의 분모가 있는 교사들의 염원은 씨앗을 맺어 지속적이며 발전적인 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제2회 도쿄와 요코하마에서의 교류회를 마치며 한국시각장애교사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류회 때 받았던 사랑과 고마움을 어떻게 다시 베풀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시금 한국시각장애교사회는 제3회 한 · 일 시각장애교사 친선 교류 연수회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시각장애교사회(JVT)가 주관하고 일본 외무성 산하의 일 · 한문화교류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된 제3회 한 · 일 시각장애교사 친선 교류 연수회의 참가자는 시각장애 교사 17명, 대학생 5명, 통역과 안내자로 총 4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한 · 일 시각장애교사 친선 교류 연수회는 한 · 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한 뜻 깊은 행사로 국가 간 정치적 교류가 아닌 민간 교육 및 문화 교류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회 교류회 회지인 '마음은 국경을 넘어'라는 제목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에 있어 이러한 교류가 무척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교류회를 추진함에 있어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일본에 대한 역사적 반감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일본에서 보고 듣고 만져 보며 체험하면서 막연하게 느꼈던 반감 보다는 일본 국민의 성실성, 친절함, 철저한 재난 대피 훈련 등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는 단지 뉴스를 통해 피해 상황에 대해 들었지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나미로 파괴된 방파제를 만져 보며 자연재해의 두려움과 삶의 터전을 찾아 복구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리오카시의 손으로 보는 박물관은 시각장애라는 장벽이 없는 곳으로 우주, 생명, 문화라는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 '백문이 불여일촉'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박물관이었습니다. 우주 테마에는 행성의 크기별로 만질 수가 있었고 생명 테마에서는 각종 동물의 박제를 실제 만져 볼 수 있었는데 작은 동물에서부터 사자, 상어, 곰, 고래, 공작 등을 만져 봄으로써 보지 못해 말로만 이해했던 동물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 테마에서는 세계적 문화 유물인 타지마할, 앙코르 와트, 도쿄 타워, 에펠탑 등을 만져 볼 수 있어 건물 양식이나 구조물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박물관이 하루빨리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교류회를 마치며 우리는 2회 교류회 때 보다 더욱 서로간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 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듣고 만져 보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며,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웁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교사회가 미래의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각장애 교사들의 권익 옹호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관계로 더욱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 안내견 절도범,
‘용서해달라’는 쪽지와 함께 주인에게 개 돌려줘

지난 2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챠오챠오를 도둑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챠오챠오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으로 태어난 이후 1년 간 훈련을 받은 뒤 6년 동안 주인 톈펑보 씨의 눈이 되어 주었는데요.

톈 씨는 “운영 중인 마사지 가게에 내 안내견인 챠오챠오를 데려다 놨었다”며 “함께 나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멈춰선 회색 차량이 챠오챠오를 데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톈 씨는 챠오챠오를 잃어버린 허탈함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과 가까운 친구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틀 뒤인 지난 2월 24일 “용서해달라”는 쪽지와 함께 절도범은 주인에게 개를 돌려주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톈펑보 씨의 제보를 토대로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5살 소녀,
화재 속에서 시각장애인 할머니 구해

지난 2월 21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동남부 캐너 마을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에서 5살 소녀가 시각장애인 할머니를 구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클로에 우즈로 캐너 마을 소방서장은 “우즈가 지난 17일 아침 7시, 연기 감지기가 울리는 것을 듣고 할머니 방에 뛰어 들어가 눈이 안보이는 할머니를 깨웠다”라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우즈는 지난 해 10월에 자신이 속한 반에서 소방서로 견학 갔을 때 배운 화재 대처 요령을 그대로 실행해 할머니와 자신의 삶을 구했습니다. 우즈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이웃집에 들어가 불을 끌 물을 가져오고 911에 신고하는 등 침착한 대응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즈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소셜 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를 통해 화재로 집을 잃은 우즈 가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직업훈련 수료식 및 입학식 열려

지난 2월 29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준석) 강당 에서 2015년 하반기 직업훈련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수료생은 모두 9명으로 제 30기 안마창업훈련 수료생 5명, 제2기 피부미용훈련 수료생 4명이었습니다. 수료생들은 직업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으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식에 이어 3월 2일에는 2016년 상반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입학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18명으로 제31기 안마창업훈련 입학생 10명, 제3기 피부미용훈련 입학생 8명이었는데요. 입학생들은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점역 · 교정 스터디그룹 모임 START!

지난 3월 5일 토요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준석) 지하 강당에서는 점역 · 교정 스터디그룹(국어)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스터디그룹은 기존의 모임이 아니라 최초로 결성된 모임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스터디모임에서는 점역 · 교정에 필요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실력보강을 위해 헷갈릴 수 있는 점자들을 뽑아 학습하였습니다.

총 15명이 참석한 점역 · 교정 스터디그룹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임과 함께 점역 · 교정에 필요한 지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월 2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광역시지부(지부장 김갑주)에서는 시각장애 어르신들의 효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 생신잔치는 핵가족화로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생신을 챙겨드림으로써 마음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광주 히딩크호텔 1층 윤영식당에서 열린 생신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모두 20명으로 케이크를 함께 자르고 기타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광주지부는 매월 생신잔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즐거움과 활력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부, 대청호 오백리길 17구간으로 떠나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북도지부(지부장 박상재)에서는 3월 12일 대전에 위치한 대청호 오백리길 17구간으로 트래킹을 떠났습니다.

“같이 걷기, 함께 바꾸기” 회원 동반 산악회에서 진행된 이번 트래킹에는 총 41명이 참석했는데요. 시각장애인 14명, 봉사자 26명,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산행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약 두 시간 가량 이어진 대청호반길 3-2 코스 트래킹은 참가자들의 마음의 휴식과 안락함을 가져오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식사를 한 후 청주 체육관에 도착해 산행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산행에 참가한 회원들은 맑은 공기가 주는 상쾌함에 반했다며 산행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흔히 시각장애인과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나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시각장애인들은 서로 눈인사를 주고받기도 하나 시각장애인들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먼저 다가가 악수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시면 한결 낫겠죠. 다음에 같은 시각장애인을 만나더라도 또렷하게 이름을 밝히면서 인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 · 중 · 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 · 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